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조복순** · 안상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 비합리적이일수록 부정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대적,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와 소망적 사고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어도 스스로 극복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 강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부모양육태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 본 논문은 조복순(2017)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가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객원상담원, 제1저자

***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교신저자, mrahn07@hanmail.net

I.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부담, 부모 및 친구와의 갈등, 자기 불만족, 가정 불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청소년통계(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생활에서 46.2%, 가정생활에서 31.8%, 학교생활에서 52.5%의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청소년기는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다른 연령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독특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악화시켜 우울증, 공격성, 만성적 피로감, 신경성 질병, 정신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다(김하경, 2008). 또한 스트레스 사건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켜 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들을 증가시키며, 정서·행동적 문제들이 다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적 관계가 형성되어 결국에는 긍정적이고 전반적인 발달을 저해시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은 행복감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물질적 행복도는 OECD국가를 포함한 72개국 중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는 OECD 22개국 중 꼴찌수준인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9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이라는 통계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후유증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청소년이 부적응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조절하여 극복하는가에 따라 비행이나 일탈로 이행되거나, 긍정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성숙된 성인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가정환경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Becker (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지적발달, 정서적 발달 그리고 적응

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반면, 부모는 자녀 행동에 대한 통제와 허용의 갈등을 겪게 된다(권석만, 2017).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권해경(2003)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책임감이나 우월감을 더 형성할 수 있지만, 지나친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에게 수줍음이나 초조감을 생기가 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나 사회적인 열등감, 그리고 매사에 용기가 없는 등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보민, 2013; 문기숙, 2004; 부영희, 2000; 윤소정, 2013; 이영희, 2016)는 그동안 활발히 수행해왔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강고운, 2015; 김경수, 김화경, 2011; 이다경, 염시창, 2015; 이영희, 2016; 이정화, 한희승, 2013)에서 보고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대처하기 힘든 사건들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전략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지연, 2010). 자아탄력성은 외적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긴장상태에 놓여있을 때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하게 한다. Luthar와 Zigler(1991)는 자아탄력성이 아동학대, 빈곤, 장애 등과 같은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더 적은 영향을 받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상호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수준

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유형화되고 정의되어 왔다. 정신분석학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이론화 한 Symonds(1949)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거부-수용,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지배 또는 복종하느냐에 따라 지배-복종,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66)는 부모의 통제형태에 따라 양육태도를 독재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로 유형화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65)의 양육태도이론을 근거로 애정-적대적, 자율-통제적, 성취-비성취적, 합리-비합리적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Bowlby(1988)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영희(2000)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이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일수록 문제중심적, 사회지지적, 자기위로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이고 비성취적일수록 감정적이고 회피적인 대처방식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문기숙(2004)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성취적일수록 사회지지 추구, 문제중심 대처와 같은 긍정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 비성취적일수록 회피대처와 같은 부정적 대처양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

다. 안문희(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중심적 대처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강보민(2013)은 부모의 성취·비성취 양육태도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 소망적사고 대처방식과 가장 큰 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윤소정(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부 애착과 모 애착 모두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대처, 소망적사고 대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희(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강하고, 또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강할수록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2.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해 가는 특성이 있다. Block과 Block(1980)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 심리 내적·환경적 위협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다. 권세원, 이애현과 송인한(2012)은 자아탄력성을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역동적 조절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족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연구한 박현진(199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스트레스 대처에도 정서중심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2008)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박미화와 박현진(201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임아영(2015)의 연구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등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임상희(2005)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이 많고 낙관성이 적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박연성과 현은민(2007)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요인 중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자신감이며, 자아탄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닌 것은 문제 중심적 대처로 나타났다. 또 남자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요인 중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낙관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분 두 변인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의 연구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은미와 박인전(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잉통제 및 제한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경수와 김화경(2011)은 아버지가 성취적 양육태도일 경우, 어머니가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일 경우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정화와 한희승(2013)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후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다경과 염시창(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고운(2015)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영희(2016)의 연구에서도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낮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연구(김기은, 2016; 박지영, 2015; 하명선, 2006)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세원, 이해현과 송인한(2012)는 부모의 많은 애정과 사랑표현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탄력성의 특성상 부모의 사랑과 관심, 지지가 청소년의 보호막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약할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선행연구는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김유정, 2013),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강주영,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이지민, 2013),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노은선, 2011; 송유민, 2016; 임예진, 2016)등이 수행되었으나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3개 시 지역, 3개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7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예비조사를, 2017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84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8부를 제외하고 총 3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종속변인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매개변인은 자아탄력성이며, 성별과 형제유무는 통제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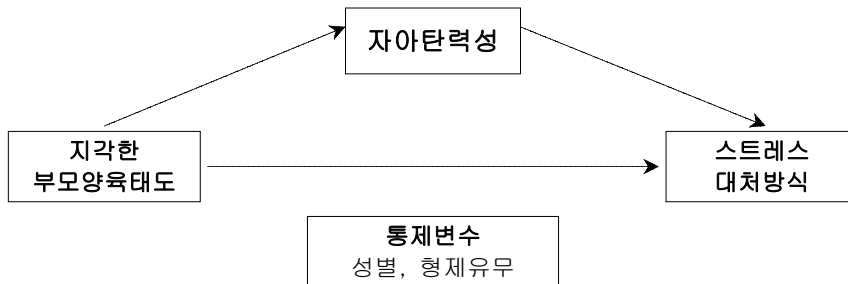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임선화(1988)가 재편성하고, 정미선(201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40문항으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적 4개 요인이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를 부정적(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전체가 .90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적대적 .81, 자율-통제적 .61, 성취-비성취적 .70, 합리-비합리적 .80이었다.

2) 매개변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84로 나타났다.

3) 종속변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4)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김정희(1987)가 번안하고, 김현영(2003)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부정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등 4개 요인 총 27개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대처방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원인 자체를 변화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사회적지지 추구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정서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난 감정적인 위협을 조절·통제하려는 것을, 소망적 사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문제중심적 대처 .71, 사회적지지 추구 .67, 정서완화적 대처 .61, 소망적 사고 .67이었다.

4) 통제변수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학년, 부모학력, 경제수준, 학교성적, 형제유무 등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이예은, 2013; 정지예, 2016; 황희석, 2003)과 형제유무(이은영, 2004; 이현화, 2012; 채경미, 2009)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자료들의 통계처리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336명 중 성별은 남학생 140명(41.7%), 여학생 196명(58.3%)이었다. 학년은 1학년 105명(31.3%), 2학년 95명(28.5%), 3학년 136명(40.5%)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졸이하 170명(50.6%), 대졸이상 160명(47.6%)이었고, 모 학력은 고졸이하 172명(51.2%), 대졸이상 158명(47.0%)이었으며, 무응답은 부모 모두 6명(1.8%)이었다. 경제수준은 상 36명(10.7%), 중 269명(80.1%), 하 26명(7.7%)이었다. 형제유무는 외동아 75명(22.3%), 형제아 261명(77.7%)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전체 평균은 표 1과 같이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의 평균이 3.7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50점,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 기준으로 최소값 1.07점, 최대값 3.93점, 평균 2.62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49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정적 대처방식인 소망적사고가 평균 3.5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긍정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

가 평균 3.38점, 사회적지지 추구가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방식은 부정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로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양육태도	애정-적대	1.90	5.00	3.70	.60
	자율-통제	1.80	4.70	3.26	.41
	성취-비성취	1.60	5.00	3.50	.51
	합리-비합리	1.70	5.00	3.47	.62
	전체	2.00	4.87	3.48	.48
자아탄력성		1.07	3.93	2.62	.49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중심적 대처	2.00	4.83	3.38	.52
	사회적지지 추구	1.00	5.00	3.31	.60
	정서완화적 대처	2.00	4.67	3.28	.44
	소망적 사고	1.86	5.00	3.51	.48

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두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애정-적대적,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와 뚜렷한 양의 상관의 보였으나 정서완화적 대처와는 약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율-통제적,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는 정서완화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양육 태도	애정-적대	1								
	자율-통제	.508**	1							
	성취-비성취	.754**	.551**	1						
	합리-비합리	.747**	.584**	.627**	1					
자아탄력성		.391**	.217**	.393**	.323**	1				
스트 레스 대처 방식	문제중심적 대처	.448**	.218**	.453**	.339**	.493**	1			
	사회적지지 추구	.389**	.189**	.417**	.299**	.476**	.600**	1		
	정서완화적 대처	.166**	.068	.190**	.055	.221**	.356**	.284**	1	
	소망적사고	.341**	.163**	.335**	.252**	.174**	.462**	.391**	.448**	1

** $p < .01$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1단계로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2단계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3단계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에서보다 감소할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1단계 분석: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형제자매 유무는 더미변수 설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학생 0, 여학생 1로, 형제자매 유무는 외동아 0, 형제아 1로 변환하였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상관과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자기상관은 Durbin-Watson(DW)지수 d 가 $1.8 < d < 2.2$ 이면 자기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데(이일현, 2014), 본 연구에서는 2.023으로 나타나 독립적이었다.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가 10 이상이고, 공차한계가 0.1 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Hocking & Pendleton, 1983). 본 연구에서는 VIF가 1.071~3.313로 10미만이고, 공차한계(tolerance)도 .302~.934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부모의 애정-적대적($\beta=.229, p<.01$)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비성취적($\beta=.223, p<.01$) 양육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20.0%이었다.

표 3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1.330			
성별(여자)	-.149	.051	-.151	-2.952**
형제유무(형제아)	-.008	.060	-.007	-.139
애정-적대	.187	.073	.229	2.548**
자율-통제	-.049	.076	-.041	-.648
성취-비성취	.213	.075	.223	2.833**
합리-비합리	.025	.063	.032	.392
F=13.716***, $R^2=.200$, $adjR^2=.186$				

** $p<.01$, *** $p<.001$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200$).05)을 만족하였으며, 등분산 그래프가 0을 중심으로 어떤 추세, 경향, 주기 등을 보이지 않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어 등분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단계 분석: 부모 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1)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DW지수가 문제중심적 대처 1.969, 사회적지지 추구 1.874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으며, 다중공선성도 VIF와 공차한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의 애정-적대적($\beta=.293, p<.01$)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비성취적($\beta=.283, p<.001$) 양육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

표 4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B	β	t	B	β	t
상수	1.909			1.742		
성별(여자)	-.073	-.069	-1.418	.014	.011	.220
형제유무(형제아)	-.205	-.164	-3.341**	-.125	-.087	-1.699
애정-적대	.256	.293	3.425**	.189	.190	2.116*
자율-통제	-.100	-.078	-1.292	-.125	-.086	-1.353
성취-비성취	.288	.283	3.769***	.365	.315	3.991***
합리-비합리	.011	.014	.178	.024	.025	.317
	F=20.450***, $R^2=.272$, $adjR^2=.258$			F=13.609***, $R^2=.199$, $adjR^2=.184$		

* $p<.05$, ** $p<.01$, *** $p<.001$

수록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27.2%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추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부모의 애정-적대적($\beta=.190, p<.05$)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비성취적 ($\beta=.315, p<.001$) 양육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사회적지지 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9.9%이었다.

(2) 부모 양육태도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상관과 다중공선성 검토한 결과, DW지수가 정서완화적 대처 1.903, 소망적 사고 1.855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표 5과 같이 정서완화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의 성취-비성취적($\beta=.182, p<.05$)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비합리적($\beta=-.176, p<.05$) 양육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합리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완화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표 5
부모 양육태도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B	β	t	B	β	t
상수	2.753			2.418		
성별(여자)	.001	.001	.014	.065	.067	1.268
형제유무(형제아)	-.009	-.008	.145	-.099	-.085	-1.605
애정-적대	.125	.169	1.730	.174	.216	2.323*
자율-통제	-.016	-.014	-.208	-.069	-.059	-.895
성취-비성취	.157	.182	2.119*	.193	.206	2.522*
합리-비합리	-.125	-.176	-2.005*	.011	.014	.172
	F=3.008**, $R^2=.052, \text{adj}R^2=.035$			F=9.089***, $R^2=.142, \text{adj}R^2=.127$		

* $p<.05$, ** $p<.01$, *** $p<.001$

한 설명력은 5.2%이었다. 또한 소망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의 애정-적대적($\beta=.216, p<.05$)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소망적 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비성취적($\beta=.206, p<.05$) 양육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소망적 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소망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4.2%이었다.

3) 3단계 분석: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 부모 양육태도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먼저, 부모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beta=.341, p<.001$)은 문제중심적 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애정-적대적($\beta=.215, p<.01$) 양육태도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가 표 4의 2단계($\beta=.293$)보다 3단계($\beta=.215$)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비성취적($\beta=.207, p<.01$) 양육태도도 종속변수인 문제중심적 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가 표 4의 2단계($\beta=.283$)보다 3단계($\beta=.207$)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beta=.365, p<.001$)은 사회적지지 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성취-비성취적($\beta=.233, p<.01$) 양육태도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가 표 4의 2단계($\beta=.315$)보다 3단계($\beta=.233$)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애정-적대적 양육태도는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 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표준화 회귀계수는 표 4의 2단계($\beta=.190$)보다 3단계($\beta=.1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완

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 양육태도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구분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B	β	t	B	β	t
상수	1.417			1.142		
성별(여자)	-.019	-.018	-.383	.080	.066	1.374
형제유무(형제아)	-.202	-.161	-3.519***	-.121	-.085	-1.768
애정-적대	.188	.215	2.661**	.106	.106	1.259
자율-통제	-.082	-.064	-1.133	-.103	-.071	-1.196
성취-비성취	.211	.207	2.911**	.271	.233	3.133**
합리-비합리	.002	.002	.040	.013	.014	.186
자아탄력성	.364	.341	6.936***	.445	.365	7.104***
	F=26.912***, $R^2=.365$, $adjR^2=.351$			F=20.630***, $R^2=.306$, $adjR^2=.291$		

** $p<.01$, *** $p<.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Z값이 2.406($p<.05$)으

표 7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검정

구분		B	SE	z	ρ
문 제 중 심 적	애정-적대→ 자아탄력성	.187*	.073	2.406	<.05
	자아탄력성→ 문제중심적 대처	.364***	.052		
	성취-비성취→ 자아탄력성	.213**	.075	2.632	<.01
	자아탄력성→ 문제중심적 대처	.364***	.052		
사 회 적 지 지	애정-적대→ 자아탄력성	.187*	.073	2.408	<.05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추구	.445***	.063		
	성취-비성취→ 자아탄력성	.213**	.075	2.635	<.01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추구	.445***	.063		

* $p<.05$, ** $p<.01$, *** $p<.001$

로 나타났으며,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Z값이 2.632($p < .01$)으로 나타나 절댓값이 1.96보다 크므로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Z값이 2.408 ($p < .05$)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Z값이 2.635($p < .01$)으로 나타나 절댓값이 1.96보다 크므로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되었다.

(2) 부모 양육태도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표 8과 같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beta = .180, p < .01$)은 정서완화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독립변수인 부모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준화 회귀계수는 표 5의 2단계($\beta = .182$)보다 3단계($\beta = .142$)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합리-비합리적($\beta = -.181, p < .05$)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정서완화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표 3의 1단계에서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정서완화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와 소망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은 소망적 사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애정-적대적($\beta = .208, p < .05$), 성취-비성취적($\beta = .198, p < .05$) 양육태도는 종속변수인 소망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14.3%이었다.

표 8

부모 양육태도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구분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B	β	t	B	β	t
상수	2.533			2.368		
성별(여자)	.024	.027	.448	.071	.072	1.351
형제유무(형제아)	-.007	-.007	-.124	-.098	-.085	-1.598
애정-적대	.095	.128	1.313	.167	.208	2.211*
자율-통제	-.008	-.007	-.102	-.067	-.057	-.872
성취-비성취	.123	.142	1.652	.186	.198	2.393*
합리-비합리	-.130	-.181	-2.095*	.010	.013	.874
자아탄력성	.163	.180	3.029**	.035	.036	.534
F=3.953***, R ² =.078, adjR ² =.058			F=7.831***, R ² =.143, adjR ² =.125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Z값이 2.068($p < .05$)으로 나타나 절댓값이 1.96보다 크므로 부모의 성취-비성취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9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검정

구분	B	SE	z	p
성취-비성취 → 자아탄력성	.213**	.075	2.068	<.05
자아탄력성 → 정서완화적 대처	.163**	.054		

** $p <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적($\beta=.229, p<.01$), 성취-비성취($\beta=.223, p<.01$)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설명력은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가 성취적 양육태도이거나 어머니가 애정적·성취적 양육태도일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김경수와 김화경(2011)의 연구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성취적일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강고운(20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이다경과 염시창(2015)의 연구와 부모의 돌봄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한 이은미와 박인전(2002)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탄력성의 특성상 부모의 관심과 사랑, 지지가 청소년의 보호막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애정-적대적($\beta=.293, p<.01$), 성취-비성취적($\beta=.283, p<.001$) 양육태도는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27.2%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대적($\beta=.190, p<.05$),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beta=.315, p<.001$)는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적지지 추구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설명력은 19.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일수록 문제중심적,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같은 긍정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문기숙(2004)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부모애착이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윤소정(2013)의 연구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강하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영희(2016)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취-비성취적($\beta=.182, p<.05$), 합리-비합리적($\beta=-.176,$

$p < .05$) 양육태도는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정서완화적 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애정-적대적($\beta = .216, p < .05$), 성취-비성취적($\beta = .206, p < .05$) 양육태도는 소망적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설명력은 14.2%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 비성취적일수록 회피적인 대처방식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부영희(2000), 문기숙(2004)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애착이 소망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나 정서중심적 대처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윤소정(2013)의 연구와 부모의 합리적 양육태도와 정서중심적 대처가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안문희(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부모의 애정적($\beta = .215, p < .01$)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beta = .341, p < .001$)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모의 성취적($\beta = .207, p < .01$)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beta = .341, p < .001$)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와의 관계에서도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취적($\beta = .233, p < .01$)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beta = .365, p < .001$)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 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모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beta = .180, p < .01$)은 정서완화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독립변수인 부모의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준화 회귀계수는 2단계($\beta=.182$)보다 3단계($\beta=.142$)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취-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합리-비합리적($\beta=-.181$, $p<.05$)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정서완화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1단계에서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정서완화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소망적 사고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낮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영희(2016)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및 낙관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학업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김유정(2013)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임예진(2016), 송유민(2016)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대처방식인 소망적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처방식을 방지할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 악화되어 우울, 학교적응, 자살충동 등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교육지원청 Wee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별로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증진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애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데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개인 내적인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매개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강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어도 이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 또래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아탄력성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포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개선을 위해 부정적인 인지구조와 내면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개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정서완화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적은 만큼, 청소년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취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후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표집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조사 시점의 응답자의 기분상태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을 함께 조사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고운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보민 (2013).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주영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대인관계적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이존중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석만 (2016).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p.354). 서울: 학지사.
- 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 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권혜경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형성**.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이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기은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치과공포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정 (2013). **어머니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하경 (2008).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영 (2003).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은선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기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화, 박현진 (201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3(1), 1-16.
- 박연성, 현은민 (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2.
- 박지영 (2015). **중학생의 성별, 부모의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영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지수(EQ)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유민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문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 관계에서 아동기 언어학대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2016).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소정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다경, 염시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2), 277-298.
- 이영희 (2016). **양육태도,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예은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은영 (2004).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일현 (2014). **Easy Flow 회귀분석** (p.69). 서울: 한나래.
- 이정화, 한희승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후기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동연구**, 22(4), 77-93.
- 이지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화 (2012). **초등학생의 부모맞벌이와 형제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화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아영 (2015).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행복감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예진 (2016). **지각된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중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예 (2016).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경미 (2009). **외동아·형제아의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통계.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17년 5월 12일 인출.
- 하명선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희석 (2003). **중학생의 학년, 성별, 지역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4), 887-90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s.), *Minnesota on Child Psychology*, 12, 39-101.
- Block, J., & Ker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2.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1-10.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Hocking, R. R., & Pendleton, O. J. (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Luthar, S. S., & Zigler, E. (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1), 6-22.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tress coping styles

Cho, Boksoon* · Ahn, Sangk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tress coping style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36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data were processed by means of an SPSS 22.0 program, which was used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Ego-resilience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onate/hostile and achieving/non-achieving parenting attitudes and the problem-based coping style. Ego-resilie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onate/hostil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pursuit of social support coping style. Ego-resilie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ing/non-achieving parenting attitudes and coping based on the emotional relief coping style.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good parent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ages of development for children so that parents can acquire more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Key Words: adolescents, parenting attitudes, stress coping style, ego-resilience

투고일: 2017. 9. 11, 심사일: 2017. 9. 26, 심사완료일: 2017. 10. 25

* Kaya University